

농촌 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
- 도시 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Rural Residents:
Based on Comparison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Urban Residents

김윤정** · 강현정***
Yun Jeong Kim · Hyun Jeong K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of rural residents. This study was based on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of urban residents. The participants were adolescents, adults, and seniors sampled from 10 provinces all over the country, from May to Aug, 2010. The data for the study were analysed as decision tree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main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for rural residents was high depression. Unlike rural residents, urban residents reporting high depression and influence of mass media showed high suicidal ideation. Second, interaction of depression and family solidarity was important predictor of suicide ideation both rural and urban residents, but a condition that effects the situation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e-mail: twoyun21@hanmail.net

*** 한서대학교 다문화교육복지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처자. e-mail: hj-cs@hanmail.net

differed between rural and urban residents. Rural residents reporting high depression and high family solidarity showed high suicidal ideation, urban residents reporting low depression and high family solidarity showed low suicidal ideation. Stress was also operate differently. Rural residents reporting moderate depression, low family solidarity and high stress showed high suicidal ideation, but stress of urban resident was not a important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nd rural residents reporting low depression and low stress showed the lowest level of suicidal ideation, urban residents reporting low family solidarity and low depression showed the lowest level of suicidal ideation.

주요어(key words): 농촌 주민(Rural Residents),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도시주민(Urban Residents)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에서 자살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OECD 국가 간 평균 11.8%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8.1%로 가장 높아(통계청, 2011) 심각한 상태이다. 근간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잇따른 자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경제인의 자살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00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최근 10여년 사이 자살은 사망원인 8위에서 4위로 상승하여, 2000년 13.1%에서 2010년 자살률은 31.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또한, 연령별로 사망원인을 보면 10대에서 30대의 사망원인 1순위가 자살이며,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사망원인 2순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게다가 노년기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WHO, 2009).

따라서 자살은 어느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 관련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2010년 전국 81개 군 지역 자살률 평균이 인구 10만명당 47.401)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 26.2명, 6대광역시 평균 29.85명, 전국 31.2명(통계청, 201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경험적 연구를 봐도, 농촌 지역 주민의 자살률이 도시지역 주민의 자살률 보다 높았다(심영희, 1986).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인의 자살률이 도시지역 성인에 비해 높았고, 노인의 경우도 중소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유정균, 2008). 김문두와 홍성철 그리고 이상이(2003)의 연구에서도 서울보다 중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할 경우 자살위험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SPRC,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 STIPDA, 2008), 오스트리아(Levin & Leyland, 200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Judd, Cooper, Fraser & Davis, 2006), 스코트랜드(Caldwell, Jorm & Dear, 2004), 중국(Phillips, Li, Zhang, 2002) 등 전 세계적으로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높다 해도 자살률은 인구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자살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농촌주민은 자살의 충격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고 외부의 도움 역시 제한적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자살은 농촌주민 전체의 삶에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되어 한 사람의 자살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1) 군지역의 자살률은 제주도와 도농복합도시를 제외하고 81개 군지역의 자살률을 평균 내어 산출하였음.

(SPRC 등, 2008). 농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은 농촌지역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자살률을 낮추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자살 시도 보다 논리적으로 앞선 사건(Pfeffer, Klerman, Hurt, Lesser, Peskin & Siefker, 1991)이라 할 수 있고, 미연에 발견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농촌 주민의 자살생각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농촌지역의 자살이 도시지역에 비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자살에 연구의 초점을 둔 연구는 단지 몇 편만이 있다. 농촌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정진과 윤명숙(2009)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알코올 남용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전영평(2010)의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갈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은석과 이선장(2009)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신체적 활동이 긍정적인 완충역할을 함을 밝혔다. 또한 양순미와 임춘식(2006)도 농촌노인의 자살생각에 가족관계 신념과 우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윤명숙과 김가득(2008)은 자살자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을 ‘죽음보다 모진 삶’으로 해석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과 노인, 자살자 자녀의 어머니 등 단일집단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농촌주민 전체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여 자살생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더 나아가 농촌주민의 자살 관련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주민의 자살관련 변인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즉 도시와는 달리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농촌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자살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의 자살률이나 자살생각의 차이를 밝힌 연구

(김문두 등 2003; 심영희, 1998; 유정균, 2008)는 있으나 관련변수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을 비교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한편,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요인은 없다(Judd 등, 2006)고 할 정도로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은 상당히 다차원적인데,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는 개인 수준의 변수와 자살간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김형수, 2002; 노용환, 2006; 송성호·김창렬·이태용·권인선, 2011; 유정균, 2008; 윤호순, 2010; Gerald et al, 2004; Leenaars, 1996), 경제적 특성(김승용, 2004; 유정균, 2008; 최형임, 2006; Judd 등, 2006; McCall, 1991), 우울감과 절망감, 스트레스, 자존감 등의 심리적 특성(강상경, 2010; 강은정, 2005; 김윤정, 2011; 김윤정·강현정, 2011; 김현순·김병석, 2008; 김효정·정미애, 2010; 송영달·손지아·박순미, 2010; 박현숙·구현영, 2009; 이은진·배숙경·엄태영, 2010; 이창식·정미나·김윤정, 2012; 최정민, 2010; Kalichman, Heckman·Kochman·Sikkema & Bergholte, 2000; Wilson·Stelzer·Bergman·Kral·Ianyatullah & Elliott, 1995), 가족결속도(강모성 등, 2006; 김윤정·강현정, 2011; 김효정·정미애, 2010; 박병금, 2007; 송영달 외, 2010; 이정윤·허재홍, 2003; Garrison, Addy Jackson, McKeown & Waller, 1991)나 자살의 가족력(김윤정, 2011; 김효정·정미애, 2010; SPRC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11), 대중매체의 영향(김병철, 2010; 김윤정, 2011; Pirkis & Blood, 2001a, 2001b; SPRC, 2011) 등 사회적 관계 특성이 자살생각과 관련된다고 밝혀져 왔다.

농촌지역의 자살 역시 우울(김정진·윤명숙, 2009; 양순미·임춘식,

2006; 이은석·이선장, 2009), 가족관계(양순미·임춘식, 2006), 알코올남용(김전진·윤명숙, 2009), 신체적 활동(이은석·이선장, 2009) 등의 개인적인 변수가 중요한 자살생각의 영향변인으로 꼽히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나 문화적인 차이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에서의 변수와 자살간의 관련성을 찾는 연구로, 주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차이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고 있다. 즉, 도시화 수준(Stack, 2000)이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이나 의료서비스접근성에서의 차이(심영희, 1986; 유정균, 2008; 이상민·서충진·김명진·김승환, 2007; Levin & Leyland, 2005; SPRC 등, 2008; Stack, 1993)에서 농촌지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찾고 있고 있다. 예를 들면, 높은 도시화 수준은 자살률을 낮추고(Stack, 2000; Kowalski et al., 1987, 유정균, 2008 재인용), 한국농촌사회의 급속한 사회경제적인 붕괴가 자살과 관련된다(유정균, 2008)고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살률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주로 자살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자살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나 자살생각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 등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자살생각과 개인적 수준 변수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개인적 수준에서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이 상당히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최근의 몇 연구(박병금, 2006; 김윤정, 2011; 김윤정·강현정, 2011)에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자살생각 관련변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는 자살생각 예측요인이 서로 맞물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회귀분석(김윤정, 2011; 김윤정·강현정, 2011)이나 구조방정식 모형(박병

금, 2006)으로는 수 많은 변인 간 존재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을 모두 탐색해 내기 어렵기(이창식 등, 2012)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모수적 모형인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의사결정(decision rule)을 도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거나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으로,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자동적으로 분류해내는 장점이 있다(최종후·한상태·강현철·김은석·김미경·이성건, 2003). 또한 전통적인 모수 통계방법은 정규성(normality)이나 선형성(linearity), 등분산성(homogeneity)과 같은 통계적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고, 척도(scale)가 혼재된 변인을 처리하는 어려움이 있어 연구의 제약과 연구결과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이창식 외, 2012). 그러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선형성, 정규성이나 등분산성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최종후·한상태·강현철·김은석·김미경·이성건, 2003), 본 연구의 자살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더구나 자살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차원적이어서 자살관련 연구의 적합한 모형 구축이 어려웠는데,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독립변수들의 특정 조합이 갖는 효과를 식별해냄으로써 모수적 모형에서 어떤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허명희, 2007) 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자살연구와 자살생각 예측을 위해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사용하여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물론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한 연구가 있다. 이창식 등(2012)은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을 비교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성인, 노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전국 농촌과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정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구분에서 중소도시를 제외한 이유는 중소도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도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도·농 복합도시들은 도시의 특성과 농촌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명확한 특성 비교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농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전국 10개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생학습센터,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기관의 직원에게 협조를 구했다. 또한 H 대학의 대학생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지역의 사전교육된 조사원에 의해 직접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고, 성인과 청소년은 직접기입방식으로, 노인은 조사원이 기입해 주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2010년 5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71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자살생각

농촌과 도시 주민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low, Newcomb과 Bentler(1986)가 제작한 자살생각척도(Suicide Ideation Scale)를 김형수(2002)가 변안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자살생각과 함께 자살시도 경험에 관한 1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해 본적이 있다’, ‘내 삶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자살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의 총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03이다.

2.2.2.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로 측정하였다.

2.2.3. 경제적 특성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경제적 특성은 가정의 소득수준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귀하가 생활하기에 어떠하십니까?”의 질문을 통해서 ‘매우 부족하다(1점)’부터 ‘매우 넉넉하다(5점)’,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2.2.4.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은 우울감, 절망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였다. 우울감은 SCL-90의 하위척도로 Choi(1992)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형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06이다. 절망감은 Beck과 Weissman (1974)이 개발한 Beck Hopelessness Scale (BHOP)을 Bae (2004)이 수정한 도구로서 총 10문항의 5점 Likert형 척도이다.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97이다. 스트레스는 한국어판 스트레스 측정도구인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를 사용하였다. BEPSI-K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형 척도이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24이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로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4점 척도를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653이다.

2.2.5. 사회관계적 특성

사회 관계적 특성은 자살의 가족력과 가족결속도,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자살의 가족력은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 중에 자살을 했거나 시도하신 분이 있는가?”에 ‘있다(1점), 없다(0점)’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족결속도는 Olson, Portner와 Lavee (1985, 1990)에 의해 개발된 FACES 시리즈를 Kim (1998)이 종합,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0문항 5점 척도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9이다.

대중매체의 영향은 “연예인 및 유명인, 혹은 다른 사람의 자살에 대한 보도를 보고 나도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예(1점), 아니오(0점)’로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SPSS 18.0의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 분석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채택한 알고리즘은 C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로 자식 노드 내 종속변수 값들이 최대화 동질적이 되도록 부모 노드를 분리하여, 노드 내 동질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허명희,2007). 본 연구에서는 최대나무 깊이(maximum tree depth)는 4수준으로 부모마디(parent node)와 자식마디(chile node)의 사례수는 각각 25와 5로 지정하였고, 독립변인들의 분리와 병합의 최소향상기준(minimum improvement)은 .001로 지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특징

농촌 지역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수준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 48.4%, 여자 51.6%로 분포되어 있었고, 연령은 평균 51.43세로 10대 청소년 29.4%, 65세미만 성

인 16.3%, 65세이상 노인 54.3%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미만이 73.1%로 가장 많으며 고졸 15.9%, 대졸이상 10.9%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0.6%로 없는 경우 39.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은 중이 가장 많은 53.8%, 하 32.1%, 상 14.0%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도시 지역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수준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 43.1%, 여자 56.9%로 분포되어 있었고, 연령은 평균 37.84세로 10대 청소년 33.3%, 65세미만 성인 50.1%, 65세이상 노인 16.6%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미만이 66.0%로 가장 많으며 고졸 7.3%, 대졸이상 26.7%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0.0%로 없는 경우 30.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은 중이 가장 많은 61.1%, 하 25.4%, 상 13.5%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농촌 지역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M(SD)	
성별 (n=221)	남	107	48.4	-
	여	114	51.6	
연령 (n=221)	19세 이하	65	29.4	51.43 (27.008)
	20세 -64세	36	16.3	
	65세 이상	120	54.3	
학력 (n=221)	고졸미만	147	73.1	-
	고졸	32	15.9	
	대졸이상	22	10.9	
혼인상태 (n=220)	배우자 유	94	60.6	-
	배우자 무	61	39.4	
소득수준 (n=221)	하	71	32.1	
	중	119	53.8	
	상	31	14.0	

〈표 2〉 도시 지역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M(SD)
성별 (n=489)	남	211	43.1	-
	여	278	56.9	
연령 (n=489)	19세 이하	163	33.3	37.84(20.147)
	20세-64세	245	50.1	
	65세 이상	81	16.6	
학력 (n=487)	고졸미만	200	66.0	-
	고졸	22	7.3	
	대졸이상	81	26.7	
혼인상태 (n=486)	배우자 유	226	70.0	-
	배우자 무	97	30.0	
소득수준 (n=488)	하	124	25.4	
	중	298	61.1	
	상	66	13.5	

3.2. 자살생각 예측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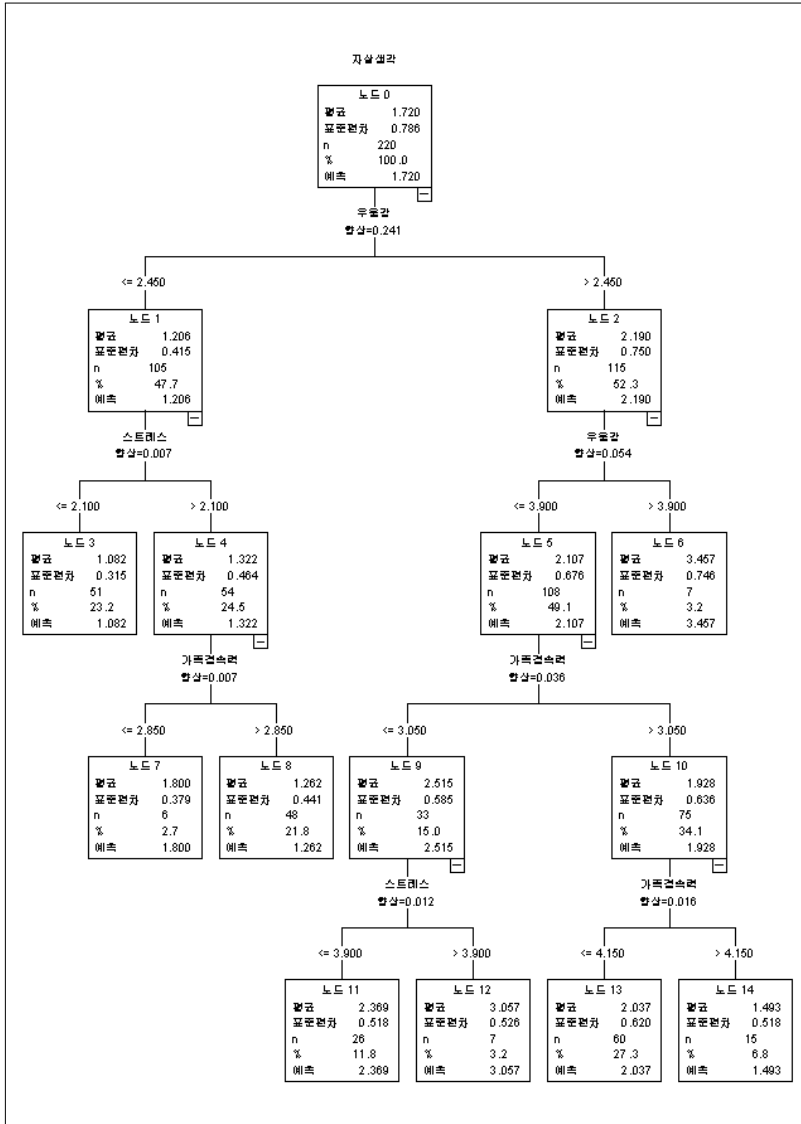
3.2.1.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모형의 타당도 검사는 교차타당성 평가인 k-fold validation을 실행하였으며, 10-fold validation의 결과 위험추정치는 0.421(표준오차=0.052)로 오분류 추정치의 위험 추정치 0.241(표준오차=0.028)과 큰 차이가 없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노드 편차가 0.786, 분산 0.610이므로 회귀나무에 의하여 설명된 분산 비율 즉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60.5%(1-리스크/뿌리노드분산)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에 관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농촌주민 자살생각 평균점수는 1.72점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주민의 자살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우울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은 우선 우울감에 의해 최적분리가 되어, 우울감이 2.4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우울감이 3.90점을 초과할 때, 자살생각이 가장 큰 것으로(노드 6) 나타나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에 높은 우울감이 가장 큰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울감 점수가 3.90점을 넘는 심각한 우울집단을 제외하고서 볼 때, 중간수준의 우울감(2.45점 초과 3.90점 이하)을 가진 농촌주민의 경우 가족결속력이 4.15점으로 높을 때 자살생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드 14). 그러나 중간수준의 우울감을 가진 농촌주민이 가족결속력도 중간수준이면서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노드 12)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

반면 자살생각을 가장 적게 하는 농촌주민은 우울감이 낮으면서(2.45점 이하)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2.10점 이하, 노드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감이 낮다 해도 스트레스가 2.10보다 높으면서 가족결속력이 2.85점 보다 낮으면(노드 7)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민의 자살생각 모형에 관한 최종 해석은 표 3의 이익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드 6번은 우울감이 3.90점을 초과하는 농촌 주민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촌주민의 3.2%에 해당되며, 자살생각 평균 3.46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드 6 (우울감 3.90점 초과)에 해당하는 농촌주민이 가장 자살생각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드 12, 노드 11, 노드 13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각 마디 이익도표

Node	개별이익지수			누적이익지수		
	Node:n	Node:%	Mean	Node:n	Node:%	Mean
6	7	3.2%	3.4571	7	3.2%	3.4571
12	7	3.2%	3.0571	14	6.4%	3.2571
11	26	11.8%	2.3692	40	18.2%	2.6800
13	60	27.3%	2.0367	100	45.5%	2.2940
7	6	2.7%	1.8000	106	48.2%	2.2660
14	15	6.8%	1.4933	121	55.0%	2.1702
8	48	21.8%	1.2625	169	76.8%	1.9124
3	51	23.2%	1.0824	220	100.0%	1.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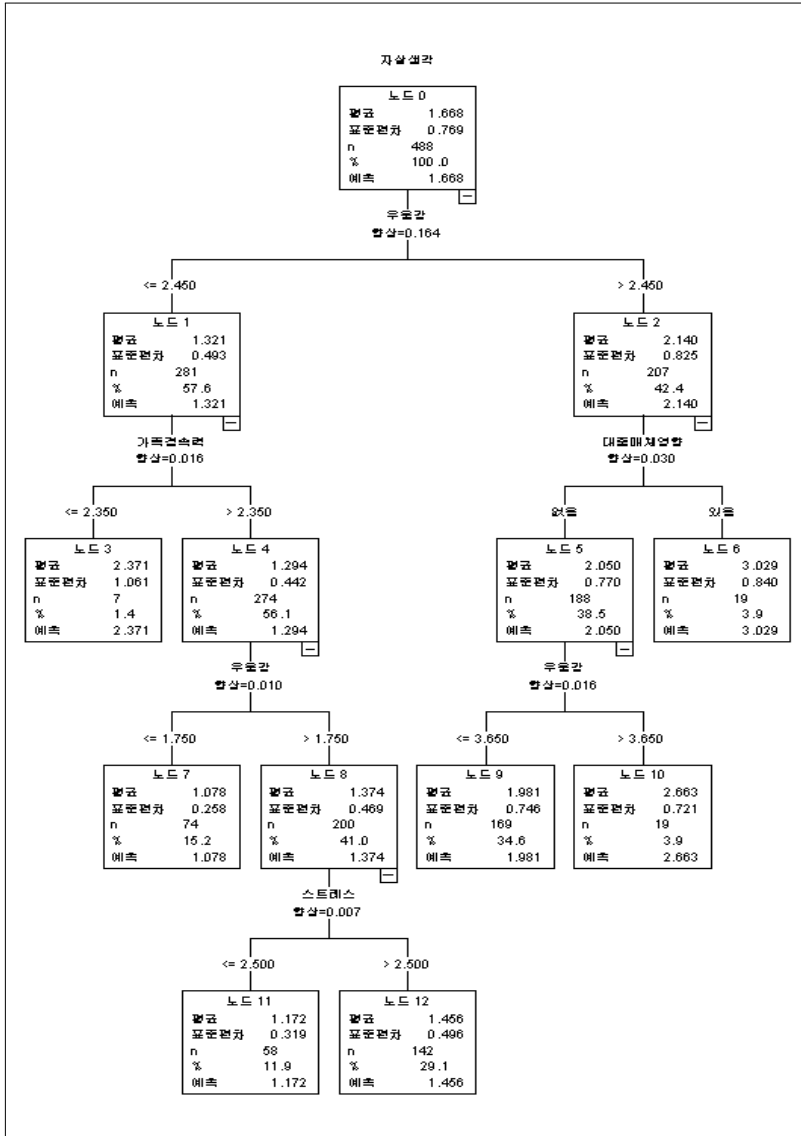
3.2.2.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모형의 타당도 검사는 교차타당성 평가인 k-fold validation을 실행하였으며, 10-fold validation의 결과 위험추정치는 0.436(표준오차=0.037)으로, 오분류 추정치의 위험 추정치 0.344(표

준오차=0.029)와 큰 차이가 없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노드 편차가 0.769, 분산 0.591이므로 회귀나무에 의하여 설명된 분산 비율, 즉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41.8%(1-리스크/뿌리노드분산)로 나타났다.

도시주민의 자살생각에 관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도시주민 자살생각 평균점수는 1.69점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주민의 자살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우울감이지만, 이 조건에서 대중매체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도시주민이 평균 3.03점으로 가장 자살생각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노드 6) 높은 우울감을 가진 도시주민이 대중매체에서 자살과 관련된 보도를 보고 그러한 보도에 영향을 받는 경우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주민도 우울감이 높을 경우(3.65점 초과, 노드 10)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영향이 없다 하여도 3.65점 초과인 높은 우울감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이 2.45점 이하이면서 가족결속력이 2.35점 이하인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평균이 2.37점으로 나타나(노드 3), 우울감이 낮아도 가족결속력이 낮을 때 자살생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살생각을 가장 적게 하는 도시주민은 가족결속력이 중간수준이면서 우울감이 낮은 경우(노드 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

도시 주민의 자살생각 모형에 관한 최종 해석은 표 4의 이익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드 6번은 우울감이 2.45점 초과이며, 대중매체에 영향이 있는 도시주민으로 3.9%에 해당되며, 자살생각 평균 3.03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드 6(우울감 2.45점 초과, 대중매체영향 있음)에 해당하는 도시주민이 가장 자살생각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드10, 노드 3 노드 9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각 마디 이익도표

Node	개별이익지수			누적이익지수		
	Node:n	Node:%	Mean	Node:n	Node:%	Mean
6	19	3.9%	3.0289	19	3.9%	3.0289
10	19	3.9%	2.6632	38	7.8%	2.8461
3	7	1.4%	2.3714	45	9.2%	2.7722
9	169	34.6%	1.9811	214	43.9%	2.1474
12	142	29.1%	1.4563	356	73.0%	1.8718
11	58	11.9%	1.1724	414	84.8%	1.7738
7	74	15.2%	1.0784	488	100.0%	1.6683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을 비교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에서 8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성인, 노인 710명의 자료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첫째,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높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감이 높다 해도 가족결속력이 높은 집단의 자살생각 수준 보다 우울감이 낮다 해도 스트레스가 높고 가족결속도가 낮은 집단의 자살생각수준이 더 높았다. 따라서 그간 자살생각에 우울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긴 하지만 우울감이 어떤 조건과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자살생각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반면, 우울감이 낮은 농촌주민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자살생각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주민의 자살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위험조건은 우울감과 대중매체의 영향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우울감이 높으면서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 도시주민의 자살생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우울감이 낮다 해도 가족결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이 높은 경우에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치명적이나, 우울감이 낮은 경우에는 가족결속도의 수준이 자살생각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결속력이 높은 도시주민이 우울감도 낮은 경우 자살생각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과 도시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을 비교해 보면, 첫째, 농촌주민의 경우 높은 우울감이 단독으로 자살생각의 가장 위험조건이었다.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에 우울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선행연구(양순미·임춘식, 2006; 윤명숙, 2009; 이은석·이선장, 2009)와 같은 맥락으로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울감을 낮추는 보건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보건소나 보건지소, 정신건강센터 등이 정착되고는 있으나, 도시에 비해 예방적 보

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고, 건강을 위한 관련시설의 접근성이 불리한 환경적 조건하에 생활하고 있다(이상민·서충진·김명진·김승환, 2007; SPRC 등, 2008).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자살생각을 미연에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는 상담센터나 다양한 보호센터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의 관련기관의 활성화와 더불어 농촌주민의 특성에 적합한 우울증 치료센터나 상담센터가 보다 전문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주민과는 달리 도시주민의 경우 우울감과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농촌과 도시간의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있다고 하나 그러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도시주민이 더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발달된 테크놀로지나 매스미디어는 도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테크놀로지와 매스미디어는 마을과 도시간의 경계선을 없앴고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었으며 대인간의 대화의 인식을 재구조화하였다(Castells, 2000; Sassen, 2001). 따라서 멀리 있는 친구나 친척간의 대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간에도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대화를 즐기고 있는 대도시인들에게 매스미디어의 영향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살관련 대중매체에의 노출만도 자살생각을 높이는데(김병철, 2010; 김윤정, 2011; Pirkis & Blood, 2001a, 2001b; SPRC, 2011),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 영향변인이라 할 수 있는 우울감이 있는 도시주민이 자살보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에 멈추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살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시키는 기능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자살과 관련된 정보만을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특히 인터넷세대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청소년이나 청년 등을 위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이나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셋째, 자살생각에서 우울감과 가족결속도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조건이었으나 그러한 조건이 작용하는 상황은 농촌주민과 도시주민 간에 달랐다. 즉 농촌주민의 경우 우울감이 높은 상황에서 가족결속도가 높을 때 자살생각이 낮아지나, 도시주민의 경우 우울감이 낮은 상황에서 가족결속도가 높을 때 자살생각이 낮았다. 가족결속도와 자살생각간의 관계가 밀접한 것은 농촌주민이나 도시주민이나 마찬가지로이나, 농촌주민에게 가족결속도는 자살생각의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이론에서의 완충효과는 스트레스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한 모델로서(김윤정, 2008), 우울감이 높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결속도는 자살생각을 낮추는 완충효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농촌의 가족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학업, 취업, 결혼 등의 이유로 가족 간의 지리적 거리가 멀고 접촉빈도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우울감이 높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 단결력을 높임으로서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순미와 임춘식(2006)의 가족간의 신념이 자살생각을 낮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넷째, 스트레스도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에게 다르게 작용하였다. 도시주민에게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을 영향을 미치는 후순위로 작용하였으나 농촌주민에게 스트레스는 다양한 조건과 맞물려 우선순위로 자살생각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 즉 농촌주민은 우울감이 중간수준이고 가족결속도가 낮은 수준인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살생각이 상당히 높았다. 또한 우울감이 낮으면서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자살생각이 가장 낮았다.

결국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은 우울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조건일 경우에는 자살생각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낮은 조건에서는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에서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및 소득기회의 부족, 특히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 및 1차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로 지역경제의 활력저하가 심각하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실업과 저취업, 빈곤,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의 침식, 공동체적 배려의 붕괴, 변화에 대한 무기력 등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의 농촌사회는 급속한 붕괴(유정균, 2008)를 맞이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급속한 붕괴로 농촌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자살과 관련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주민간의 관계가 유기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하기 때문에(SPRC 등, 2008)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살생각을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익명성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행위에 대한 낙인이 강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Rose, Smith, Taylor, 1993; Wrigley, Jackson, Jadd & Komiti, 2005). 따라서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에 스트레스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농촌사회의 붕괴, 그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및 더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낙인 등의 문제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측면에서의 도움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현재 농촌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농촌주민을 위한 다양한 센터나 교육기관,

경제 및 정책기관들이 모여 농촌주민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공동의 방안을 강구하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나 농촌주민간의 관계 개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주민은 낮은 우울감의 조건에서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자살생각이 가장 낮았고, 도시주민의 경우에는 가족결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울감이 낮은 경우 자살생각이 가장 낮았다. 물론 어떤 조건이 선조건인가에는 차이가 있으나 농촌주민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도시주민의 경우는 가족결속도에 의해 자살생각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에서 스트레스의 중요성은 앞서 설명을 했고, 도시주민의 자살생각에서 가족결속도의 중요성은 우리사회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가족결속도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강모성 등, 2006; 김효정·정미애, 2010; 박병금, 2007; 송영달 외, 2010; 이정윤·허재홍, 2003; Garrison, Addy, Jackson, McKeown & Waller 1991)와 같은 맥락이다. 즉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의 경우 서로간의 개별성이 존중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익명성과 개별성이 특징인 도시지역에서 가족간의 유대감, 결속력, 끈끈함이 자살생각을 낮추는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도시주민의 개별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주민이 지역주민 간의 유대관계는 낮을 수 있으나 도시의 핵가족중심적인 삶은 자살생각에서 가족결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민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이 개인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가족 중심, 가족단위로 진행될 때 도시주민의 자살생각을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가족단위 사업을 보다 많이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가족의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할 때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예측변인을 찾기 위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자살과 관련된다고 알려진 다차원적인 변수를 투입하여 의사결정나무를 통한 분석을 통해 농촌주민의 자살생각의 주요 예측 조건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예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농촌주민의 자살생각 예측요인이 도시주민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농촌주민 자살생각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가족결속도 등의 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사회의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Judd 등, 2006) 그로 인한 기분장애나 우울감,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은 자살의 중요한 예측요인이기 때문에, 자살과 개인수준의 변수간의 관련성 및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변수와의 관련성은 서로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자살을 예측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지리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장벽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자살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통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자살예방과 중재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Hirish, 2006)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 개인적수준의 변수간의 관련성에서 농촌지역 자살생각 예측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단일연구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변수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농촌주민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방안을 찾는 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의사결

정나무 분석에서 노드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가 발생되어 과대적합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노드의 수는 전체 데이터 크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본 연구처럼 자살생각이라는 연구주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타당성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대규모의 자살관련 연구조사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강모성, 전영주, & 손태홍. (2008). 기혼 중년남성의 직무 및 가족 스트레스와 자살 구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05-134.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100.
- 강은정. (2005). 연령계층별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 *보건복지포럼*, 107, 81-86.
- 김문두, 홍성철, & 이상이. (2003). 사회계층이 자살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4, 249-271.
- 김병철. (2010). 자살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8(1), 41-63.
- 김승용. (2004).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81-205.
- 김윤정. (2011).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3), 429-444.
- 김윤정, & 강현정. (2011). 성인기 자살생각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45-61.
- 김정진, & 윤명숙. (2009). 농촌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24(4), 77-102.
- 김현순, & 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01-219.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김효정, & 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노용환. (2006). 자살의 경제학적 분석. *경제학연구*, 54(3), 177-200.
- 박병금.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가족환경요인과 자살생각: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17.

- 박현숙 · 구현영.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완충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1), 87-94.
- 송성호 · 김창렬 · 이태용 · 권인선. (2011).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농촌의학 지방보건학회지*, 36(1), 1-12.
- 송영달 · 손지아 · 박순미. (2010).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30(2), 643-660.
- 심영희. (1986). 한국사회의 자살: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4, 49-71.
- 양순미 · 임춘식. (2006). 농촌노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우울의 효과. *노인복지연구*, 32, 377-396.
- 유정균. (2008).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한국인구학*, 31(2), 21-44.
- 윤명숙 · 김가득. (2008).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의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29, 115-148.
- 윤호순. (2010). 노인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석 · 이선장. (2009). 농촌지역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에 있어서 신체적 여가활동의 완충효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2(2), 35-54.
- 이은진 · 배숙경 · 엄태영. (2010). 독거노인 자살시도에 대한 우울과 여가활동 참여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0(2), 615-628.
- 이정윤 · 허재홍. (2003).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위험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2), 85-95.
- 이창식 · 정미나 · 김윤정. (2012). 중고등학생의 학교급에 따른 자살생각의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3(1), 31-55.
- 전영평. (2010).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미친 요인에 대한 연구;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민. (2010) 노인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233-253.
- 최종후 · 한상태 · 강현철 · 김은석 · 김미경 · 이성건. (2003). *데이터마이닝 예측 및 활용*. SPSS 아카데미.
- 최형임. (2006).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 고찰. *사회복지개발연구*, 12(3),

273-298.

- 통계청 DB. (2011). 201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www.kosis.go.kr.
- 허명희. (2007). SPSS 분류분석. SPSS KOREA.
- Argent N, Rolley F. (2000). Financial exclusion in Rural and Remote New South Wales, Australia: a Geography of Bank Branch Rationalisation, 1981-1998.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38, 182 - 203.
- Beck, A. T. & R. A. Steer. (1989). Clinical Predictors of eventual suicide: 5-to 10 year prospective study of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 203-209.
- Beck, A. T. & Weissman, A.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861-865.
- Caldwell, T.,M.& Jorm, A., F. & Dear, K. (2004). Suicide and mental health in rural, remote and metropolitan areas in Australia.,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81(7), 10-13.
- Castells, Manuel.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D' Zurilla, T, J.,&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ment*, 2, 156-163.
- Garrison, C.Z., Addy, C.L., Jackson, K.L., McKeown, R.E., & Waller, J.L. (1991). The CES-D as a screen for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636 - 641.
- Gerald, C. D., John, M. N., Ann, & M. Kring. (2004). *Abnormal Psychology*, 9/Edition, 이봉건 역, 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237-239.
- Harlow. L. L, Newcomb. M.,D. & Bentler P.M.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5-21.
- Hirish, J. K. (2006).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Rural Suicide.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7(4), 189-199. 10.1027/0227-5910.27.4.189

- Judd, F., Cooper, A., Fraser, C., & Davis, J.(2006). Rural suicide—people or place effec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3), 208-216.
- Kalichman, S. C., Heckman, T., Kochman, A. Sikkema, K., & Bergholte, J. (2000).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 Among Middle-Aged and Older Persons Living With HIV-AIDS. *Psychiatric Services*, 51(7), 2012. 7. 8. <http://ps.psychiatryonline.org /data /Journals/PSS /3547/903.pdf>
- Leenaars, A. A. (1996). Suicide: A multidimensional malaise.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6, 221- 236.
- Levin. K.,A. & Leyland, A.,H. (2005). Urban -Rural Inequalities in Ischemic Heart Disease in Scotland. 1981-1999. *Am J Public Health*. 2006 January; 96(1): 145 - 151.
- McCall, P.L.(1991). Adolescent and Elderly White Male Suicide Trends. *Journal of Gerontology*, 46(1), 43-51.
- Nock, M. K., Borges, G, Bromet E. (2008). Cross-national prevalence and risk factor suicide mortality: a global cross-sectional analysis in an epidemiological transition perspective. *Public Health*, 118, 346-348
- Olson, D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IIL*.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epartment of Family Social Science. Quay, HC (Ed).
- Pfeffer, C. R., Klerman, G. L., Hurt, S. W., Lesser, M., Peskin, J. R., & Siefker, C. A. (1991). Suicidal children grow up: Demographic and clinic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609-616.
- Pfeffer. C Y.& Klerman,G. L.& Hurt. S.W., Lesser.M & Peskin, J.R. & Siefker,C.A. (1991) Suicidal Children Grow Up: Demographic and Clinic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4), 609-616.
- Phillips MR, Li X, Zhang Y. Suicide rates in China, 1995-99. *Lancet*, 359(9309): 835-840.
- Pirkis, J., & Blood, R. W. (2001a). Suicide and the media: Part 1: Reportage in nonfictional media. *Crisis*, 22, 146-154.
- Range, L. M., & Antonelli, K. B. (1990). A factor analysis of six commonly used

- instruments associated with suicide u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804-81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Rost K, Smith GR, Taylor JL. (1993). Rural-urban differences in stigma and the use of care for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Rural Health*, 9, 57-62.
- Sassen, Saskia (2001) *Global City*, (2nd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RC,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 STIPDA. (2008). Preventing youth suicide in rural America: Recommendation to state. 2012. 6. 13.
<http://www.sprc.org/sites/sprc.org/files/library/ruralyouth.pdf>.
- WHO. (2009). Suicides from Mortality database. 2012. 8.1. www.who.int/healthinfo/morttables.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nayatullah, M., & Elliott, C. A.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2), 241-252.
- Wrigley S, Jackson H, Judd F, Komiti A. (2005). The role of stigma and attitudes towards help seeking from a GP for mental health problems in a rural tow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9(6), 514-521.

논문투고일: 2012. 8. 10

1차수정일: 2012. 9. 5

게재확정일: 2012. 9. 12